

勞 動 經 濟 論 集
 第25卷(1), 2002. 3, pp. 161~182
 © 韓國 勞 動 經 濟 學 會

여성의 자영업 결정요인과 경력단절 가능성

성 지 미*

취업 중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자영업 선택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는 일천하다. 특히 여성에게 있어 결혼과 자녀 보육이 취업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의 선택이 자유로운 자영업은 여성의 가사노동과 경력 유지를 병행하는 하나의 대안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여성의 취업·미취업의 선택과 피고용·자영업의 선택을 동시에 고려하는 이변량 프로빗 모형(bivariate probit model)을 「한국노동패널」 1차년도(1998) 자료에 적용하는 한편 취업한 여성을 3차년도(2000)까지 추적하여 이 기간 중 발생한 노동공급의 변화-노동시장에서 퇴장, 근로시간 증가, 근로시간 감축-의 결정요인을 다항로짓 모형(multinomial logit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취업의 선택에서 어린 자녀의 존재는 유의한 부(-)의 효과를 갖는 반면 자녀 보육 보조자의 존재는 유의한 정(+)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며, 자영업의 선택에서 자녀의 존재는 정(+)의 효과를 가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게 나타난다. 결혼과 어린 자녀의 수의 증가는 노동시장에서의 퇴장에 유의한 부정적 효과를 미친 반면 근로시간의 감축에는 유의한 효과를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임금근로자와 비교할 때, 비용자가 없는 자영자와 무급가족종사자는 근로시간 증가보다는 노동시장 퇴장에서 퇴장하는 확률이 낮고 비용자가 없는 자영자는 근로시간을 감축하는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근로시간의 유연성으로 가사노동과 시장노동의 병립이 용이한 자영업을 잠재 여성인력의 활용과 경력 단절을 막는 방안으로 고려하는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 주제어: 여성과 자영업, 노동시장 퇴장, 근로시간 유연성, 경력단절

투고일: 2002년 1월 8일, 심사일: 1월 11일, 심사완료일: 3월 4일

* 한국기술교육대학 산업경영학부(jsung13@chollian.net)

I. 서론

우리 나라에서 자영업의 비중은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에 33.9%에서 하락 추세를 유지하여 1988년에 31.1%, 1996년에 27.9%로 하락하였다. 그러나 경제위기를 전후하여 상승 추세로 반전하여 1997년에 28.3%, 1998년과 1999년에 28.8%를 기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OECD국가와 비교할 때, 자영업에 대한 연구는 일천하다. 최근 몇몇 연구들(류재우·최호영, 1999; 김우영, 2000; 금재호·조준모, 2000; 안주엽, 2000)에서 자영업 선택의 결정요인이 분석되고 있는 정도이다.

자영업의 결정요인에 초점을 둔 대부분의 외국 연구에서 나타나는 시각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노동시장에 대량의 실업이나 다양한 잠재적인 차별(potential discrimination)이 존재할 때, 자영업이 노동시장에 참가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평가되어 왔으며 동시에 빈곤으로부터 탈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소규모 자영업의 창업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혁신(innovation)의 기반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셋째, 자영업은 일자리를 시작하는 동기와 근로시간의 유연성과 자율성 등에서 임금근로자와는 다르며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이 자영업 선택에서 중요하다라는 것이다.

자영업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나타나는 제한점은, 특히 여성에게 있어 상대적으로 보다 이질적인 개인의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 자영업자의 특성이 남성과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이유 때문에 자영업의 결정요인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남성만을 연구대상으로 하거나, 남성과 여성을 분리·비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자영업의 경우 성별 비교에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근로소득이다.

자영업의 근로소득에서의 성별 격차가 임금근로의 경우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를 설명하기 위한 연구가 하나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¹⁾ 여성 자영업자의 저소득에

1) 「한국노동패널」 1차 조사 자료를 이용한 금재호·조준모(2000)에 따르면, 임금근로 남성과 임금근로 여성의 근로소득 비율은 1:0.605인 반면, 자영업의 경우는 1:0.526으로 자영업에서의 성별 근로소득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관한 연구는 인적자본(human capital)의 측면에서 생산성이 낮기 때문이라는 입장과 여성이 남성과는 다른 동기에 의해 자영업을 선택한다고 보는 입장으로 대별된다. 후자의 경우 여성의 자영업 선택에 있어 근로시간의 유연성(time flexibility)이 우선되며, 여성 자영업자는 자녀 보육 등 가사노동에서의 시간 요구(time demand)가 커질 때 근로시간을 줄이고 가사노동에 투입하는 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시간 제약을 우회함으로써 시장노동과 가사노동을 병립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의 연구는, Becker(1981, 1985)의 연구에서 나타나는 시장노동과 가사노동 간의 비교우위에 의한 시간 분배를 바탕으로, 결혼 및 자녀 보육이 기혼여성 자영업자의 시간당 근로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예를 들면, Hundley, 2000). 이러한 연구들의 공통된 결과는, 기혼여성 자영업자가 남성과는 달리, 가족규모 또는 가족구성이 변화할 때 시장노동시간을 줄이고 가사노동시간을 늘림으로써 근로소득이 감소된다는 점과 자녀 보육 등 가사노동에 투입하는 시간과 어린 자녀의 존재 및 어린 자녀의 수가 시간당 근로소득을 낮추는 효과를 갖는다는 점이다.

근로시간의 장단과 근로시간 선택의 경직성은 특히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을 제한하는 효과를 갖는다. 평균 근로시간이 길고,²⁾ 풀타임과 파트타임의 전환이 자유롭지 않고, 근로조건에서의 제한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결혼, 자녀의 출산 및 양육의 시기에 있는 여성의 취업 장애요인 중 자녀 보육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통계청, 「사회통계조사」, 2000), 이를 반영한 여성의 취업률은 출산을 전후하는 30~34세에 급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U.S. Department of Commerce (1995)의 자료에 따르면,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여성근로자의 84.5%가 비경제적인 이유로 파트타임을 선택하였으며 자녀 보육 및 가사와 관련된 비경제적인 이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이 자영업을 선택하는 결정요인을 살펴보고 자영업과 임금근로의 선택이 노동시장에서의 퇴장³⁾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여성 취업의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결혼 및 자녀 보

2) 「매월노동통계조사」에 따르면, 1999년에 여성 근로자의 초과근로를 포함한 평균 근로시간은 주당 47.3시간이다.

3) 본 연구에서 '노동시장에서 퇴장'이라 함은 취업상태에서 미취업상태로(일시적으로) 이동한 것을 의미하며, '경력단절'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즉, 취업의사가 있을 수도 있으나 주변 환경요인에 의해 취업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육 등 여성 노동공급의 장애요인이 임금근로와 자영업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노동패널」 1차년도(1998)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둘째, 결혼이나 출산 및 어린 자녀수의 변화가 취업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퇴장, 근로시간의 감축 등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노동패널」 1차년도(1998)와 3차년도(2000)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셋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의 경력단절 없는 노동공급 방안으로서 자영업 선택이 갖는 의미와 이와 관련된 정책 시사점에 대해 논의한다.

다음 장에서는 자영업 선택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간단히 소개한다. 제Ⅲ장에서는 「한국노동패널」 자료와 표본의 선택 및 기초분석의 결과를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영업자는 유급 종업원이 있는 고용주와 유급 종업원이 없는 자영자, 18시간 이상 일하는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다⁴⁾. 류재우·최호영(1999)이 지적하듯, 여성의 경우에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실질적인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남성의 자영업 결정에 관한 연구와는 달리, 고용주와 자영자 및 무급가족종사자 간에 구분을 하지 않고 자영업자라 칭하기로 한다. 제Ⅳ장에서는 실증분석에 사용되는 모형 — 취업 여부와 자영업 선택의 결정을 동시에 고려하는 이변량 프로빗 모형과 노동시장에서의 퇴장, 근로시간의 감축 또는 증가를 고려하는 다항로짓 모형 — 을 간략히 소개한 후 추정 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 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연구방향 및 정책 시사점을 제시한다.

Ⅱ. 선행연구

자영업 선택의 결정요인에 대한 국내의 선행연구는 대부분 직업 및 직업환경과 관련된 특성, 인구통계학적 특성, 가구의 특성을 중심으로 한 연구를 하였고, 자영업 선택의 이유(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자율성)는 자료상의 한계로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남성 표본만을 대상으로 한 자영업 선택의 결정요인 분석에서 김우영(2000)은 첫 직장(-), 미혼(-), 이전 직장의 자영업 유무(+), 부친의 자영업 유무(+), 연령(+)⁴⁾이 중요한 효

4)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지위를 고용주와 자영자 및 무급가족종사자로 구분한다. 한편, 류재우·최호영(1999)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자영자를 자영자(또는 순수자영업자), 고용주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까지 포함하는 경우에는 자영근로자(또는 자영부문 종사자)로 구분하고 있다.

과를 미침을 보여준다. 재취업 확률에 관한 분석에서 안주엽(2000)은 여성의 경우 자영업을 통한 재취업의 확률은 대졸 이상, 미혼, 자녀가 있는 경우에 낮았고,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이전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 높음을 보여준다. 자영업주를 고용주와 자영자로 세분하고, 다항로짓 모형을 이용한 선택 모형을 분석한 류재우·최호영(1999)은 학력이 고용주 선택에는 정(+)의 효과, 자영자 선택에는 부(-)의 효과가 있음을 발견하고, 여성 자영업주의 시간제근로의 비중이 매우 낮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자료를 볼 때, 신속적인 노동시간의 선택 가능성을 전제로 노동시장에 참가하고자 하는 잠재근로자를 자영업이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였다.

자영업의 근로소득과 근로시간에 초점을 둔 Hundley(2000)는, 결혼 및 자녀 보육 등 가사노동에 대한 요구가 증가할 때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보다 용이하게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소득의 차이를 보인다는 결과를 발견하였다. 가사노동시간과 시장노동시간의 상호교환을 분석한 Hundley(2001)는 자영업에서의 근로시간 유연성은 가사노동에 대한 요구가 많아질 때 시장노동시간의 감축과 가사노동시간의 증가가 유연하게 이루어지며, 이로 인해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여성 자영업자의 근로소득은 임금근로자에 비해 낮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으며, 이러한 근로시간의 유연성은 노동시장에서의 퇴장에는 부(-)의 효과를 미치는 한편 일자리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를 갖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Ⅲ. 분석자료 및 기초분석

1. 「한국노동패널」 자료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 제1차년도(1998년)와 제3차년도(2000년) 조사 자료를 이용한다. 「한국노동패널」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추출된 5,000가구를 원가구표본으로 포함하고, 이에 속하는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13,738명을 원개인표본으로 포함한다. 3차년도 자료는 신규 표본을 포함한 4,256가구와 11,204명의 개인을 포함하고 있다.

개인표본에 대한 설문은 임금근로와 비임금근로 등 취업 여부, 근로형태, 현재 일자리

및 이전 일자리의 특성, 근로소득, 근로시간, 부모의 경제활동상태, 혼인상태와 학력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다. 가구표본에 대한 설문은 가구원의 구성 및 연령, 가구의 총 소득, 자녀 보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 표본의 선택

본 연구의 표본은 연구 목적에 따라 두 가지로 구성된다. 여성의 취업·미취업의 의사결정과 피고용·자영업의 선택을 분석하는 데 사용되는 첫 번째 표본(여성 표본이라 한다)은 1차 조사 당시 개인표본 중 20세에서 55세 미만의 여성 표본으로 분석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4,676명이 포함된다. 1차 조사와 3차 조사 두 시점 사이에 노동공급의 변화—노동시장에서 퇴장, 근로시간의 감축, 근로시간 증가(변화 없음 포함)—를 분석하기 위한 두 번째 표본(취업자 표본이라 한다)은 1차 조사 당시 취업상태에 있었고, 3차 조사에도 응답하였으며, 분석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1,610명의 여성이 포함된다.

3. 표본의 기초분석

취업 여부와 피고용자·자영업자 여부에 따른 여성 표본의 특성이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여성 표본에 포함된 20세 이상 55세 미만의 여성 중 1차년도 조사 당시 미취업의 비중은 55.1%,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28.3%, 자영업자의 비중은 16.6%로 나타나며, 취업여성 중 자영업자의 비중은 약 37%로 통계청 조사에 나타난 42%(한국노동연구원, 2001)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이다.⁵⁾

집단별 연령구조를 살펴보면 20~29세 연령층의 경우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41%로 가장 높으며, 자영업자의 비중은 9.2%로 상당히 낮은 편이다. 반면 40~49세 연령층의 경우는 미취업자의 비중이 23%에 불과한 반면, 자영업자의 비중은 43%에 이르고 있다. 즉, 여성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임금근로보다는 자영업을 선택하는 비중이 높음을 알 수

5) 본 연구에서 자영업자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비임금근로자와 동일하며,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인 고용주와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인 자영업자를 구분하지 않으며 18시간 이상 무급가족종사자도 포함한다. 표본의 자영업자 775명 중 피용자가 있는 고용주는 89명, 피용자가 없는 자영업자는 330명, 무급가족종사자는 356명이다.

있다. 특히 자영업자 여성 중 40대의 높은 비율은 미취업 또는 임금근로자 중 40대인 여성의 비율에 비해 16~19%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1〉 취업상태별 여성표본의 특성

(단위: 명, %)

범주형변수	미취업 (N=2,579) 빈도 (%)	임금근로자 (N=1,322) 빈도 (%)	자영업자 (N=775) 빈도 (%)
연령			
연령 20~29세	840 (32.6)	538 (40.7)	71 (9.2)
연령 30~39세	876 (34.0)	362 (27.4)	288 (37.2)
연령 40~49세	604 (23.4)	348 (26.3)	329 (42.5)
연령 50세 이상	259 (10.0)	74 (5.6)	87 (11.2)
학력			
고졸 미만	664 (25.7)	357 (27.0)	384 (49.6)
고졸	1,214 (47.1)	554 (41.9)	277 (35.7)
고졸초과 대졸 미만	376 (14.6)	171 (12.9)	52 (6.7)
대졸 이상	325 (12.6)	240 (18.2)	62 (8.0)
자녀의 존재			
2세 미만 자녀	400 (15.5)	72 (5.5)	39 (5.0)
2세~6세 미만 자녀	598 (23.2)	150 (11.4)	111 (14.3)
6세~12세 미만 자녀	624 (24.2)	249 (18.8)	205 (26.5)
12세~18세 미만 자녀	668 (25.9)	415 (31.4)	328 (42.3)
자녀보육의 보조자 존재	80 (3.10)	119 (9.0)	16 (5.9)
무배우자 (미혼, 이혼 또는 사별)	562 (21.8)	591 (44.7)	105 (13.5)
기혼여성 배우자의 취업상태			
임금근로자	1316 (55.0)	587 (55.0)	137 (20.0)
자영업자	622 (26.0)	229 (21.4)	470 (68.6)
무직(이혼 또는 배우자 사별 포함)	453 (19.0)	252 (23.6)	78 (11.4)
모친이 자영업	126 (4.9)	75 (5.7)	78 (11.4)
첫 번째 직장	-	552 (41.8)	297 (38.3)
이전 직장이 자영업	-	63 (4.8)	72 (9.3)
대도시	1588 (61.6)	813 (61.5)	411 (53.0)
주택소유	1500 (58.2)	743 (56.2)	445 (57.4)
연속변수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가구총소득(근로소득 제외) (월평균)	163.9 (159.6)	106.9 (138.2)	126.9 (113.2)
배우자의 근로소득 (월평균)	118.3 (121.2)	91.2 (85.2)	103.3 (104.7)
금융소득 (월평균)	5.2 (27.1)	2.3 (15.3)	2.8 (17.6)
자산소득 (월평균)	4.2 (30.8)	2.3 (20.8)	2.4 (18.6)
이전소득 (월평균)	2.1 (11.6)	1.0 (7.3)	0.7 (6.2)
기타소득 (월평균)	11.1 (94.2)	7.9 (77.7)	2.8 (33.1)
주당 근로시간	-	48.4 (15.2)	61.4 (25.4)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제1차년도(1998) 조사자료. 표본은 제1차조사 당시 20세~55세 미만인 4,676명의 여성.

어린 자녀의 존재와 자녀 보육 보조자의 존재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와 참가유형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자녀와 관련된 특성을 집단별로 비교해 보면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비중은 미취업자의 경우 15.5%나 되어 임금근로자나 자영업자의 경우에 비해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2~6세 미만 자녀에 대해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자녀 보육의 보조자가 있는 비중은 미취업자의 경우 3%에 불과한 반면 임금근로자의 경우는 9.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자영업자의 경우는 6%로 나타난다. 즉, 어린 자녀의 존재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제약으로 작용하며, 임금근로자의 경우 자녀 보육의 보조자를 가장 많이 활용하며 자영업자는 미취업자보다는 활용하는 비중이 높으나 보조자의 필요성이 임금근로자보다는 낮음을 알 수 있다.

소득과 관련된 특성을 집단별로 살펴보면, 가구총소득(근로소득 제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은 미취업자에서 가장 높고, 임금근로자와 비교할 때 자영업자 여성의 가구 총소득수준은 더 낮은 반면 배우자의 근로소득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자영업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부모의 자영업 여부나 이전 직장의 자영업 여부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자영업자 집단에서 높게 나타나, 자영업의 선택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노동공급의 변화에 대한 기초분석

1차 조사(1998년)와 3차 조사(2000년) 두 시점 사이에 나타난 여성의 노동공급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1차 조사 당시 취업자(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가 3차 조사 시점에서도 취업상태에 있는지 또는 노동시장에서 퇴장했는지, 계속 취업상태에 있다면 근로시간을 조정하는가의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⁶⁾. <표 2>는 이와 관련된 취업자 표본의 기초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취업자 표본(1,610명)은 38%의 자영업자와 62%의 임금근로자로 구성되어 있다. 두 조사 시점 사이에 자영업 상태를 유지하는 비중은 76%로 임금근로 상태를 유지하는 비중 71%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취업자 표본 중 약 21%가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6) 1998년과 2000년의 두 조사 시점 사이는 경제위기에 이은 급속한 경기회복 기간으로 전체적으로 근로시간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본 연구는 노동시장에서 퇴장과 근로시간의 감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근로시간의 불변과 증가는 구분하지 않는다.

〈표 2〉 1998년과 2000년의 취업상태 변화: 노동시장 퇴장·근로시간 감축·근로시간 증가

(단위: 명, %)

1998년 취업유형	2000년 취업상태	빈도	노동시장 퇴장	근로시간의 변화	
				감축	증가 ¹⁾
임금근로자	→ 임금근로자	700(70.6)	-	271	429
	→ 자영업자	46(4.6)	-	16	30
	→ 미취업자	246(24.8)	246	-	-
	소계	99(100.0)	246(24.8)	287(28.9)	459(46.3)
자영업자	→ 임금근로자	56(9.1)	-	26	30
	→ 자영업자	472(76.4)	-	215	257
	→ 미취업자	90(14.5)	90	-	-
	소계	618(100.0)	90(14.5)	241(39.0)	287(46.4)
전 체		1,610(100.0)	336(20.9)	528(32.8)	746(46.3)

주: 1) 근로시간에 변화가 없는 경우를 포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1차년도(1998), 3차년도(2000) 조사자료. 표본은 1998년에 취업상태에 있었던 20~55세 미만의 여성 중 3차년도 조사에 응답한 1,610명의 취업자 표본.

것으로 나타나나, 이를 취업형태별로 보면, 임금근로자의 경우는 25%에 이르는 반면 자영업자의 경우는 15%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다. 상대적으로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에 비해 경력단절의 가능성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근로시간의 유연성과 관계가 깊은 것으로 나타난다. 근로시간을 감축한 비중을 보면, 임금근로의 상태를 유지한 표본(700명)의 경우 38.7%(271명)에 불과한 반면 자영업 상태를 유지한 표본(472명)의 경우는 45.6%(215명)로 월등히 높게 나타나,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은 취업자 표본의 표본특성별 노동시장 퇴장 및 근로시간의 변화에 대한 기초 분석을 보여준다. 취업자가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비중을 보면, 자영업의 경우 임금근로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자영업을 세 유형으로 구분할 때 14%대에서 거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근로시간을 줄이는 비중은 피용자가 있는 고용주의 경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연령대별로 노동공급의 변화를 살펴보면 취업한 20~29세 연령층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근로시간을 줄이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학력별로 살펴보면 초졸 이하와 중졸은 다른 학력 수준

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동시장에서 퇴장한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6세 미만의 자녀수가 증가하는 경우(74명)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비중이 5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은 초혼의 경우에도 유사하여 52%정도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취업자표본의 특성별 노동공급의 변화

(단위: 명, %)

	취업자수	노동시장 퇴장 (N=336)	근로시간증가/불변 (N=746)	근로시간 감축 (N=528)
범주형 변수				
초기의 취업형태				
임금근로자	992	246 (24.8)	459 (46.3)	287 (28.9)
자영업자: 피용자가 있는 고용주	62	9 (14.5)	28 (45.2)	25 (40.3)
피용자가 없는 자영업자	256	37 (14.5)	132 (51.5)	87 (34.0)
무급가족종사자	300	44 (14.7)	127 (42.3)	129 (43.0)
연령				
연령 20~29세	428	131 (30.6)	172 (40.2)	125 (29.2)
연령 30~39세	510	97 (19.0)	241 (47.3)	172 (33.7)
연령 40~49세	540	86 (15.9)	267 (49.5)	187 (34.6)
연령 50세 이상	132	22 (16.7)	66 (50.0)	44 (33.3)
학력				
초졸 이하	299	46 (15.4)	146 (48.8)	107 (35.8)
중졸	312	53 (17.0)	153 (49.0)	106 (34.0)
고졸	649	157 (24.2)	292 (45.0)	200 (30.8)
고졸초과 대졸미만	157	43 (27.4)	60 (38.2)	54 (34.4)
대졸이상	193	37 (19.2)	95 (49.2)	61 (31.6)
자녀의 존재				
2세 미만	87	27 (31.0)	34 (39.1)	26 (29.9)
2세~6세 미만	220	54 (24.5)	102 (46.4)	64 (29.1)
6세~12세 미만	360	66 (18.3)	168 (46.7)	126 (35.0)
12세~18세 미만	599	97 (16.2)	305 (50.9)	197 (32.9)
6세 미만 자녀수의 증가	74	40 (54.1)	18 (24.3)	16 (21.6)
자녀 보육의 보조자 존재	123	26 (21.1)	57 (46.4)	40 (32.5)
결혼상태의 변화				
결혼상태: 미혼→결혼	56	29 (51.8)	15 (26.8)	12 (21.4)
결혼상태: 결혼→이혼/사별	15	5 (33.3)	7 (46.7)	3 (20.0)
결혼상태: 이혼/사별→결혼	17	5 (29.4)	6 (52.3)	6 (52.3)
연속변수				
월평균 가구총소득(근로소득제외)	1,610	103.6 (919)	119.0 (125.9)	112.9 (145.7)
배우자의 월평균 근로소득	1,610	73.3 (94.5)	86.4 (91.3)	79.4 (89.9)
가구총소득의 변화(근로소득제외)	1,610	41.2(516.7)	1.5 (102.4)	1.6 (79.8)
배우자의 근로소득의 변화	1,610	13.0 (85.9)	9.7 (125.0)	11.5 (95.0)

주: 범주형 변수의 경우 집단별 빈도(구성비)이고, 연속 변수의 경우 집단별 평균값(표준편차)임.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1차년도(1998), 3차년도(2000) 조사자료. 표본은 1998년에 취업상태에 있었던 20~55세 미만의 여성 중 3차년도 조사에 응답한 1,610명의 취업자 표본.

IV. 실증분석

1. 자영업 선택의 결정요인

가. 분석모형

여성의 취업·미취업 선택과 취업자 중 자영업·임금근로의 선택, 두 가지 의사결정을 동시에 고려하기 위하여 이변량 프로빗 모형(bivariate probit model)을 적용한다. 취업상태에 있는 표본만을 사용하여 자영업 선택을 추정하는 경우 취업·미취업 선택의 무시에서 발생하는 표본선택편의(selectivity bias)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또한 두 의사결정에서의 오차항의 진정한 상관관계가 영(0)이 아닌 경우에 취업·미취업 선택의 분리추정(separate estimation) 역시 추정치의 비효율성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분리추정량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표본선택편의를 회피하기 위해 부분관찰 가능성(partial observability)⁷⁾을 고려한 이변량 프로빗 모형을 적용한다.

이변량 프로빗 모형⁸⁾은

$$\begin{aligned} \text{(모형식 1)} \quad Y^* &= X\alpha + \varepsilon & Y &= 1(Y^* > 0) \text{ 또는 } Y=1 \text{ (취업)}, Y=0 \text{ (미취업)} \\ S^* &= Z\beta + \eta & S &= 1(S^* > 0) \text{ 또는 } S=1 \text{ (자영업)}, S=0 \text{ (임금근로)} \end{aligned}$$

로 표현되며, 여기서 Y^* 와 S^* 는 각각 관찰 불가능한 취업·미취업 선택과 자영업·임금근로의 취업유형의 선택의 잠재변수(latent variable), Y 와 S 는 각각 관찰가능한 표본의 정보로부터 얻어지는 취업 선택과 자영업 선택을 나타내는 종속변수, X 와 Z 는 각각 취업과 자영업을 선택하는 요인들로 구성된 설명변수의 벡터, α 와 β 는 각각의 선택식에서 추정되어질 계수벡터, ε 와 η 는 두 가지 선택식의 오차항, $1(\cdot)$ 은 지시함수(indicator function)로 괄호 안의 조건이 성립하면 1의 값을 가지며, 그렇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갖는 함수이다. 오차항 ε 과 η 은 이변량 정규분포를 따르며 두 오차항의 상관계수는 ρ 로 표

7) Meng과 Schmidt(1985) 참조.

8)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는 LIMDEP 7.0을 사용.

현된다.

나. 선택식의 결정요인

취업 여부의 선택식을 추정하기 위한 설명변수로는 연령대별 가변수(20~29세(기준으로 사용),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교육수준 가변수(고졸 미만, 고졸(기준으로 사용), 고졸 초과 대졸 미만, 대졸 이상), 자녀의 존재를 나타내는 가변수(2세 미만 자녀, 2~6세 미만 자녀, 6~12세 미만 자녀, 12~18세 미만 자녀), 자녀 보육 보조자 존재 여부, 무배우자(미혼, 이혼, 사별 포함), 배우자가 존재하는 경우 배우자의 근로소득, 가구의 제반 소득(금융소득, 자산소득, 이전소득, 기타소득)을 사용한다.

임금근로·자영업의 선택식을 추정하기 위한 설명변수로는 연령대별 가변수들, 교육수준 가변수, 자녀의 존재를 나타내는 가변수, 배우자가 존재하는 경우 배우자의 취업형태(임금근로, 자영업), 배우자의 근로소득, 가구의 근로소득을 제외한 총소득, 모친의 자영업 여부, 첫 번째 일자리 여부, 이전 직장의 자영업 여부, 대도시(광역시) 거주 여부, 주택소유 여부가 포함된다.

다. 실증분석 결과

두 선택식의 추정 결과가 <표 4>에 제시되고 있다. 두 선택식에서의 오차항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ρ)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두 가지 의사결정의 독립성을 상정한 분리추정이 비효율성과 편의성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1) 취업·미취업의 선택

취업 선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연령 50세 이상의 가변수, 고졸 미만, 대졸 미만, 대졸 이상, 2세 미만 자녀의 존재, 2~6세 미만 자녀의 존재, 6~12세 미만 자녀의 존재, 12~18세 미만 자녀의 존재, 자녀 보육의 보조자의 존재 여부, 배우자 없음, 배우자가 존재하는 경우 배우자의 근로소득, 가구의 금융소득·자산소득·이전소득·기타소득으로 나타난다.

결혼과 초산을 경험하는 20대 여성에 비해 30대에서 (유의하지는 않으나) 상대적으로 취업할 확률이 높아지는 반면 40대에서는 낮아지고, 50세 이상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의 평생주기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교육수준이 취업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고졸과 비교할 때 고졸 미만이나 대졸 이상 모두 취업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자녀의 존재 및 자녀의 연령구조가 취업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2세 미만 자녀, 2~6세 미만 자녀, 6~12세 미만 자녀의 존재는 여성의 취업확률을 낮추는 반면 12~18세 미

〈표 4〉 취업과 자영업 선택의 추정결과

	취업 선택	자영업 선택
연령 (20~29세)		
30~39세	0.0204 (0.0615)	0.8976 (0.1068)***
40~49세	-0.0306 (0.0612)	1.0057 (0.1136)***
50세 이상	-0.4221 (0.0826)***	1.0000 (0.1615)***
학력 (고졸)		
고졸 미만	0.2020 (0.0506)***	0.2609 (0.0782)***
고졸초과 대졸 미만	-0.1924 (0.0646)**	0.1006 (0.1176)
대졸 이상	0.1756 (0.0626)**	0.0087 (0.1016)
자녀의 존재		
2세 미만	-0.8453 (0.0782)***	0.1745 (0.1468)
2세~6세 미만	-0.4236 (0.0581)***	0.1107 (0.1034)
6세~12세 미만	-0.1723 (0.0569)**	0.0695 (0.0888)
12세~18세 미만	0.1423 (0.0464)**	0.0039 (0.0740)
자녀보육의 보조자 존재	1.1525 (0.0897)**	-
무배우 (미혼, 이혼, 사별)	0.3622 (0.0701)***	-
배우자의 근로소득	-0.0574 (0.0096)***	0.0001 (0.0024)
금융소득	-0.1218 (0.0217)***	-
자산소득	-0.0843 (0.0235)***	-
이전소득	-0.2190 (0.0305)***	-
기타소득	-0.0953 (0.0203)***	-
기혼여성 배우자의 취업형태 (무직)	-	-
임금근로자	-	-0.4264 (0.1339)**
자영업자	-	0.8692 (0.1183)***
가구총소득 (근로소득 제외)	-	0.0456 (0.0198)*
모친의 자영업	-	0.0011 (0.1239)
첫 번째 일자리	-	0.0024 (0.0663)
이전 직장이 자영업	-	0.3496 (0.1162)**
대도시	-	-0.1231 (0.0641)*
주택소유	-	-0.1274 (0.0649)*
상수	0.1683 (0.0590)	-1.7478 (0.1231)***
-(Log-likelihood)	3930.850	
오차항 상관계수 (ρ)	0.3859 (0.1435)**	

주: ***, **, *, +는 유의수준 0.001, 0.01, 0.05, 0.10을 의미함(괄호 안은 표준오차).

소득변수는 로그를 취하였으며 소득이 0인 경우는 소득의 로그를 0으로 처리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1차년도(1998) 조사자료. 표본은 20세~55세 미만인 4,676명의 여성.

만의 자녀의 존재는 오히려 이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자녀 보육 보조자의 존재는 취업확률을 유의하게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무배우자 상태는 여성의 취업확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가구의 금융소득·자산소득·이전소득·기타소득이 높을수록 취업확률이 낮아진다는 추정치는 여성의 취업이 경제적인 이유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2) 자영업의 선택

표에서 보듯, 자영업 선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30~39세, 40~49세, 50세 이상의 가변수, 고졸 미만, 임금근로인 배우자, 자영업 배우자, 가구총소득, 이전직장의 자영업, 주택소유, 대도시 거주로 나타난다.

20대 연령층과 비교할 때, 연령이 높아질수록 임금근로보다는 자영업을 선택할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이전직장의 자영업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양의 값을 보여주는 것과 함께 20대의 여성들이 임금근로자로 일하다가 결혼 및 출산 등으로 노동시장에서의 경력단절을 경험한 후 임금근로보다는 자영업으로 노동시장에 재진입한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졸 미만이 자영업을 선택할 확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임금근로의 선택에서 저학력이 가지는 부정적인 효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배우자가 임금근로자이면 자영업을 선택하는 확률이 더 낮고 배우자가 자영업자이면 자영업을 선택하는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자영업의 특성이 두 배우자가 함께 경영하는 가족기업의 형태일 가능성이 높은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가구총소득이 높을수록 자영업 선택의 확률이 높아지고, 주택소유는 자영업 선택에 부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취업상태 이동의 결정요인

가. 분석모형

기간의 경과와 주변환경의 변화로 발생하는 노동공급의 변화는 크게 노동시장으로부터의 퇴장과 노동시장에의 지속적인 참여로 대별되며, 후자는 근로시간의 조정(감축, 증가 또는 불변)으로 나뉜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 또는 자녀 출산 및 자녀 보육과 같은 사

건(events)이 발생하는 경우 여성의 노동공급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이를 노동시장에서 퇴장, 근로시간 감축, 근로시간 증가(변화 없음 포함)로 나누고, 세 가지 선택 가능성을 동일선상에서 고려하는 다항로짓 모형을 적용한다.⁹⁾

이러한 선택 가능성을 고려하는 다항로짓 모형은

$$\begin{aligned} (\text{모형식 2}) \quad T_0 &= C_0\theta_0 + \mu_0 \quad \text{근로시간 증가(또는 불변)} \\ T_1 &= C_1\theta_1 + \mu_1 \quad \text{노동시장 퇴장} \\ T_2 &= C_2\theta_2 + \mu_2 \quad \text{근로시간 감축} \end{aligned}$$

로 표현되며, 여기서 (C_0, C_1, C_2) 는 각 선택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의 벡터, $(\theta_0, \theta_1, \theta_2)$ 는 추정되어질 계수벡터, (μ_0, μ_1, μ_2) 는 각 선택식의 오차항이다. 관찰된 종속변수는, 만약 모든 $k (\neq j)$ 에 대해,

$$T_j > T_k, \quad j = 0, 1, 2$$

로 정의되며, 오차항들이 독립적이고 동일한 극한치 분포함수(extreme value distribution)를 따르는 경우 각 대안의 선택확률은

$$\Pr[j \text{를 선택}] = \frac{\exp(C_j\theta_j)}{\sum \exp(C_j\theta_j)}, \quad j = 0, 1, 2$$

이 된다.

모형의 추정에 사용된 설명변수는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기준으로 사용), 피용자 있는 고용주, 피용자가 없는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초기의 주당 근로시간(의 로그), 연령대별 가변수(20~29세(기준으로 사용),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교육수준(초졸 이하, 중졸, 고졸(기준으로 사용), 고졸 초과 대졸 미만, 대졸 이상), 자녀 보육의 보조자 존재, 9개의 산업별 가변수, 6개의 직업별 가변수와 1998년과 2000년 간의 변화를 반영하는 배우자 근로소득의 변화, 가구총소득(근로소득 제외)의 변화, 3개의 결혼상태 변화의 가변수(미혼에서 초혼, 결혼에서 이혼/사별, 이혼/사별에서 결혼), 6세 미만 자녀수의 증

9) 근로시간의 변화를 연속변수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토빗 모형(Tobit model)을 적용할 수 있으나, 근로시간을 감축하는 경우와 증가시키는 경우가 비대칭적인 속성을 띠는 점과 노동시장 퇴장 자체를 고려할 수 없다는 제약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을 위하여 노동시장 퇴장은 근로시간의 감축 또는 증가와는 정성적으로 상이한 개념임에 주목하여 근로시간의 변화에 대한 정보의 손실을 감수하고 근로시간의 감축이나 증가 여부만을 분석하기로 한다.

가가 포함된다.

나. 실증분석 결과

<표 5>는 근로시간 증가(변화 없음 포함)를 기준으로 한 다항로짓 모형의 추정 결과를 보여준다. 표에서 보듯, 노동시장 퇴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갖는 변수는 피용자 없는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40~49세, 가구총소득의 변화, 미혼에서의 결혼, 6세 미만 자녀수의 증가, 일부 산업별 가변수(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공공행정·보건 및 기타), 직업별 가변수 중 전문직·관리직으로 나타난다. 근로시간 감축에 효과를 갖는 변수는 피용자 없는 자영업, 1998년 주당 근로시간, 농림어업, 기술직, 사무직, 단순노무직으로 나타난다.

임금근로자에 비해 자영업자가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확률이 전체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한편 근로시간을 감축하는 확률 역시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자영업자가 경제적인 이유로 노동공급의 형태를 변화시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0~29세 연령층에 비해 30~39세와 40~49세 연령층이 노동시장에서 퇴장할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결혼과 자녀 보육이 집중되는 20대 후반, 30대를 지난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안정적인 취업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¹⁰⁾ 취업상태의 이동에 교육수준이 미치는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초졸 이하의 경우는 고졸에 비해 노동시장에서 퇴장할 확률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경제적인 변화를 반영하는 가구총소득(근로소득 제외)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가구총소득이 증가할수록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확률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 취업에서 경제적 이유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보여준다. 미혼에서 결혼으로 혼인상태의 변화나 6세 미만의 자녀의 증가가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확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요인이 여성의 노동시장 경력단절을 유발시킨다는 기존의 논의를 뒷받침해 준다. 초기의 근로시간이 길수록 노동

10) 가사노동과 시장노동에의 시간 배분 및 자영업과 관련된 해외의 기존연구들은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자영업이 상대적으로 근로시간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물론 피용자가 있는 경우에 유연성이 더 커질 확률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임금근로자와 비교할 때 피용자 없는 자영자와 무급가족종사자가 근로시간 증가보다 노동시장 퇴장을 선택할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반면 피용자 있는 고용주의 경우는 낮기는 하나 유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자영업자의 종사상지위의 세분이 연구 결과에 심각한 변화를 초래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5> 취업상태 이동의 다항로짓 모형 추정 결과

	노동시장 퇴장 (N=336)	근로시간 감축 (N=528)
종사상지위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피용자가 있는 고용주	-0.6690 (0.4214)	-0.0999 (0.3354)
피용자가 없는 자영업자	-0.7122 (0.2340)**	-0.4742 (0.2153)*
무급가족종사자	-0.4530 (0.2302)*	-0.1473 (0.2043)
초기의 근로시간	0.2191 (0.1193)*	3.0719 (0.2508)***
연령 (20~29세)		
연령 30~39세	-0.3119 (0.2033)	0.1803 (0.1933)
연령 40~49세	-0.5041 (0.2272)*	0.0078 (0.2097)
연령 50세 이상	-0.3603 (0.3380)	-0.1008 (0.3010)
교육수준 (고졸)		
초졸 이하	-0.4161 (0.2492)*	-0.1291 (0.2161)
중졸	-0.2451 (0.2154)	-0.1361 (0.1918)
고졸 초과 대졸 미만	0.2963 (0.2642)	0.3410 (0.2524)
대졸이상	-0.1822 (0.2871)	0.1924 (0.2625)
자녀보육의 보조자 존재	0.0354 (0.2717)	-0.1349 (0.2399)
두 시점 사이의 변화		
배우자 근로소득의 변화	0.0005 (0.0006)	0.0006 (0.0006)
가구총소득(근로소득 제외)의 변화	0.0017 (0.0007)*	-0.0001 (0.0007)
결혼상태: 미혼→결혼	0.7470 (0.3716)*	-0.0955 (0.4329)
결혼상태: 결혼→이혼/사별	0.5984 (0.6135)	-0.4572 (0.7410)
결혼상태: 이혼/사별→결혼	0.8102 (0.6293)	0.7500 (0.6605)
6세 미만 자녀수의 증가	1.5379 (0.3314)***	0.2881 (0.3802)
산업 (숙박·음식업)		
농림어업	-0.1750 (0.5159)	0.9996 (0.4363)*
제조업	-0.3834 (0.3081)	-0.1686 (0.2994)
건설업	-0.2006 (0.5759)	0.4130 (0.5392)
도·소매업	-0.3766 (0.2536)	0.1274 (0.2281)
운수·창고 및 통신업	-3.0631 (1.1169)**	-0.5685 (0.5491)
금융 및 보험업	-0.8338 (0.4007)*	-0.5632 (0.3941)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0.5289 (0.4401)	0.0464 (0.3952)
교육서비스업	-0.5678 (0.3931)	0.0849 (0.3763)
공공행정·보건 및 기타	-0.7221 (0.2972)*	-0.0259 (0.2668)
직업(서비스·판매직)		
전문직·관리직	-1.0607 (0.4605)*	0.4844 (0.3855)
기술직	-0.0118 (0.3292)	0.9165 (0.3177)**
사무직	-0.2056 (0.2715)	0.8481 (0.2612)**
농·어업 및 기능직	-0.2964 (0.3127)	0.3518 (0.3012)
장치·기계조작(조립)	0.0145 (0.3737)	0.4378 (0.3652)
단순노무직	0.2757 (0.3090)	0.8114 (0.3035)**
상수	-0.6539 (0.5447)	-12.9425 (1.0788)***
-(Log-likelihood)	1470.794	
Chi-squared 검정통계량	436.4233***	

주: <표 4>의 주를 참조.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1차년도(1998), 3차년도(2000) 조사자료. 표본은 1차 조사 당시 20~55세 미만이며, 취업상태에 있고 3차년도 조사에 응답한 1,610명의 여성.

시장에서 퇴장할 확률과 근로시간을 줄일 확률이 모두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근로시간이 많은 여성이 상대적으로 근로시간 감축을 통하여 노동공급을 지속함을 알 수 있다.

V. 결 론

취업자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5% 이상으로 다른 OECD국가와 비교할 때 상당한 수준이다. 여성의 경우에 가족기업에서 무급가족종사자로 18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도 빈번함을 고려하여 비임금근로의 모든 종사상지위를 자영업에 포함할 때, 여성 자영업자의 비중은 2000년을 기준으로 19.7%에서 39.2%로 더욱 높아진다.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의 한 형태로서 자영업이 지니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자영업 선택에 대한 연구는 일천한 셈이다. 자영업의 선택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는 자영업의 비자발적 선택이라는 측면을 강조한 반면 근로시간(또는 근로시간대)의 조정 및 근로환경에서의 유연성이 특히 여성에게 갖는 장점에 대해서는 불충분하게 논의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이 자영업을 선택하는 결정요인을 살펴보고, 임금근로와 비교할 때, 자영업이 갖는 근로시간의 유연성으로 인하여 자영업에 종사하는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퇴장할 확률이 낮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여성 인력의 경제활동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1차년도(1998) 자료를 이용하여 결혼 및 자녀 보육과 같은 여성 노동공급의 장애요인으로 파악되어 온 특성들이 여성의 취업 선택과 자영업 선택에 미치는 효과를 부분적 관찰가능성을 갖는 이변량 프로빗 모형의 추정을 통하여 분석하고, 1차년도(1998)와 3차년도(2000) 자료를 이용하여 두 시점 사이에 결혼이나 출산 및 어린 자녀수의 변화가 여성의 노동공급의 변화—특히 노동시장으로부터 퇴장—나 근로시간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다항로짓 모형의 추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에서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 선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연령 50세 이상의 가변수, 교육수준, 자녀의 연령구조별 존재, 자녀 보육 보조자의 존재, 배우자 없음,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근로소득, 가구의 금융소득·자산소득·이전소득·기타소득로 나타난다. 둘째, 자영업 선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갖는 변수는 연령대별 가변수, 고졸 미만, 임금근로인 배우자, 자영

업인 배우자, 가구총소득(근로소득 제외), 이전직장이 자영업, 주택소유, 대도시 거주 등으로 나타난다. 셋째, 근로시간을 증가(변화 없음 포함)한 경우와 비교할 때, 노동시장 퇴장에 유의한 효과를 보이는 요인으로는 피용자 없는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40~49세, 가구총소득(근로소득 제외)의 변화, 미혼에서 결혼으로의 혼인상태의 변화, 6세 미만 자녀의 증가, 초기의 근로시간 등으로 나타나며, 근로시간 감축의 경우에는 피용자 없는 자영자, 초기 근로시간으로 나타난다.

실증분석에서 얻은 결론은 어린 자녀의 존재와 수는 여성의 취업 선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타인의 도움 여부는 앞에서 설정한 부정적인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결혼 및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본 연구가 설정한 가설을 입증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자녀의 연령구조가 근로시간의 조정이 용이한 자영업 선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입증되고는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다. 또한, 어린 자녀의 증가는 노동시장에서 퇴장할 확률을 높인다는 가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채택되고 있는 반면, 근로시간 감축은 촉진할 것이라는 가설은 입증되기는 하였으나 역시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즉, 여성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와 비교할 때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확률은 낮지만 근로시간의 감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여성이 노동시장에 계속 남아 있는 경우에 자영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으며, 자영업을 통해 노동시장에 진입 또는 재진입하는 경우에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다른 측면은 경제적인 이유로 자영업을 선택하였을 때 자영업자는 근로시간을 감축하지 않고 지속적인 노동공급을 계속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기존의 자영업에 대한 연구는 자영업의 선택이, 특히 여성에 대한 노동시장에서의 차별과 인적자본에 대한 저평가로 인한 비자발성에 기초하고 있음을 부각하고 있다. 이는 실제로 자영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근로소득이 낮은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여성의 자영업 선택이 빈곤문제의 측면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더 나아가, 자영업이 임금근로에 비해 여성에게 있어 지속적인 노동공급을 가능케 하는 장점을 갖는다는 인식이 실증분석을 통해 증명되고 정책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즉,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나 이직 준비에서 하나의 긍정적인 대안으로 자영업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근로시간의 유연성이 확보되지 않은 임금근로자는 일자리를 그만두어야 하지만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이 유연한 자영업자는 일자리를 지속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보

다 엄밀한 후속 연구와 이를 위한 자료의 구비가 요구된다.

여성의 자영업 선택의 결정요인과 여성 자영업자의 근로시간 유연성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는 자영업 선택의 이유와 근로시간의 조정과 관련된 상세한 설문을 포함하는 패널자료가 필요하며, 시장노동과 가사노동에 투입된 시간을 측정하는 시간 사용에 대한 자료는 연구의 진전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1999년 각호.
- 김재호·조준모. 「자영업의 선택에 관한 이론과 실증분석」. 『노동경제논집』 23권 특별호 (2000. 2): 81-107.
- 김우영. 「취업형태의 비교우위와 자영업주의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노동경제논집』 23권 특별호 (2000. 2): 55-80.
- 류재우·최호영. 「우리나라 자영업 부문에 관한 연구」. 『노동경제논집』 22권 1호 (1999. 6): 109-140.
- 안주엽. 「경기변동과 일자리 탐색기간: 임금노동과 자영업의 선택」. 『노동경제논집』 23권 특별호 (2000. 2): 109-132.
- 한국노동연구원. 『2001 KLI 노동통계』. 2001.
- Becker, Gary S. *A Treatise on the Famil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1.
- Becker, Gary S. "Human Capital, Effort, and the Sexual Division of Labor." *Journal of Labor Economics*, 3 (1), (part 2, January 1985) S33-S58.
- Hundley, Greg. "Male/Female Earnings differences in Self-Employment: The Effects of Marriage, Children, and the Household Division of Labor."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54 (1) (October 2000): 95-114.
- Hundley, Greg. "Domestic Division of Labor and Self/Organizationally Employed Differences in Job Attitudes and Earnings."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22 (2) (Summer 2001): 121-139.

Meng, Chun-Lo and Schmidt, Peter. "On the Cost of Partial Observability in the Bivariate Probit Model."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26 (1) (February 1985): 71-85.

U.S. Department of Commerce. *Statistical Abstract of the United States*. 1995.

abstract

The Choice of Self-Employment and Career Interruption Among Females

Jaimie Sung

The self-employment can provide work time flexibility. Work time flexibility would be a critical factor for married females' labor supply considering allocation of their time to market work and household work. This study used the 1998 and 2000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urvey for the empirical analyses. Applying the bivariate probit model with partial observability, this study analyzed factors related to the choice of participation in labor market and choice of self-employment. Also,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marriage and the presence of younger children on changes in decisions related to labor supply using the multinomial logit model: exit from the labor market, increasing and decreasing work hours. The presence of the younger children showed a significantly negative effect on the participation in labor market while positive, but insignificant, effect on self-employment. Compared with females working for others, self-employers without employees and unpaid family workers are less likely to exit labor market rather than increasing work hours. The self-employment would be a good alternative to evade females' career interruption and therefore to enhance the potential human resources.